

오바마, LG화학 2차전지 기공식 참석

AP·UPI, 7월15일 콤팩트파워 공장 방문 ... LG화학은 참석여부 미확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LG화학(대표 김반석)의 전기자동차(EV)용 2차전지 미국공장 기공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월10일 AP·UPI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7월1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의 홀랜드에서 열리는 콤팩트파워의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콤팩트파워는 LG화학의 미국 연구법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지자로 5년 안에 전기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7월15일 미시간 공장의 기공식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억300만달러를 투자한 미국공장은 2013년 완공 예정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기준 20만대의 2차전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2010년 1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에 공급키로 했으며, 미국공장이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오창공장에서 생산하는 2차전지를 수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2>